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SOUTHEAST ASIA

동남아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12~10/18

1. 인도 화물 시장 성수기 종료에 따른 운임 및 할증료 하락

2. 루프트한자 카고의 뭄바이 신공항 전환과 아시아 네트워크 확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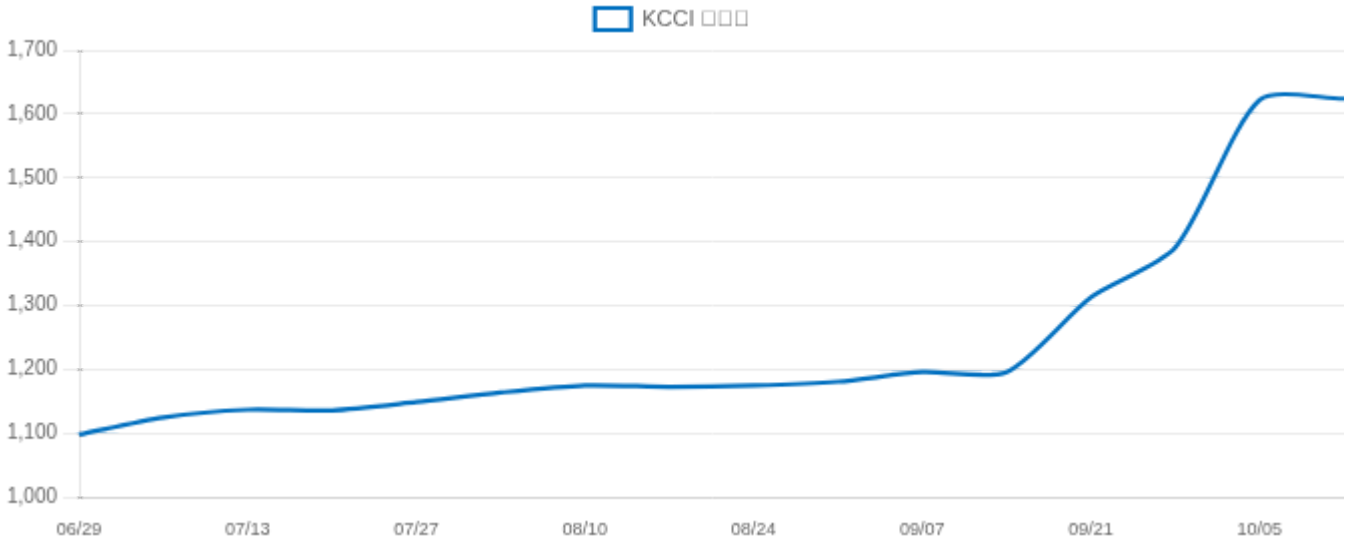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동남아 물류·항공 시장은 인도발 화물 수요의 계절적 변곡점과 글로벌 항공사들의 네트워크 재편이 맞물리는 전환기적 흐름을 보였음. 인도 서향 성수기 종료로 컨테이너 운임과 할증료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화주들의 운송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음.

루프트한자 카고가 오는 2026/2027 동계 시즌부터 아시아·태평양 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뭄바이 화물기 운항을 신공항으로 전환키로 한 결정은 역내 항공 화물 경쟁 구도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인도 화물 운임 하락과 글로벌 항공사의 인프라 선점 전략이 겹치면서 동남아 시장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되나, 장기적으로는 물류 효율성 향상과 선택지 다변화가 기대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동남아	1,624 $/FEU	10/12	+0.1%	+35.8%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10/12

인도 화물 시장 성수기 종료에 따른 운임 및 할증료 하락

> **인도발 서향 화물 성수기가 끝나면서 컨테이너 운임과 각종 할증료가 동반 하락하고 있음.**

인도발 서향 항로의 현물 운임과 할증료가 성수기 종료와 함께 하락세를 보임. 선사들은 수요 감소를 반영해 예약 취소 수수료와 롤오버 수수료를 인하함. 예를 들어 하파그로이드는 인도 고객 대상 예약 취소 수수료를 기존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대폭 낮췄음.

이러한 할증료 인하는 수개월간 지속된 초호황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함. 성수기 동안 선사들은 컨테이너 노쇼와 예약 취소에 대해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했음.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긴급 할증료가 급증했으나, 최근 물동량 감소로 선사들의 협상력이 약화됨.

운임 하락과 할증료 인하는 인도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동안 높은 물류비 부담과 선복 확보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주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됨. 한 포워더는 '시장이 화주 우위로 전환되고 있으며 선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할증료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함.

- 하파그로이드, 인도발 예약 취소 수수료를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하
- 선사들, 지난 몇 달간 예약 취소 및 노쇼 수수료를 운임에 포함시켜 수익성 극대화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긴급 할증료 부과가 최근 완화됨
- 포워더, '시장이 화주 우위로 전환'이라고 평가

전망

인도발 서향 항로의 운임과 할증료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 중동 정세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한 긴급 할증료 재부과 가능성은 낮음. 선사들은 수요 감소에 대응해 운임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인도 수출 화주 — 물류비 부담 완화로 가격 경쟁력 회복 및 수익성 개선 기대

포워더 — 선사 대비 협상력 강화로 화주에게 유리한 운임 조건 제시 가능

선사 —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및 노선 조정 필요

참고자료: The Loadstar, Ex-India spot rates and surcharges ease as peak comes to an end (검색일: 2026-10-18)

루프트한자 카고의 뭄바이 신공항 전환과 아시아 네트워크 확장

> **루프트한자 카고가 2026/2027 동계 스케줄에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뭄바이 화물기 운항을 신공항으로 전환함.**

루프트한자 카고는 2026/2027 동계 스케줄을 발표하며 전 세계 40개 목적지에 88개 화물기 노선을 제공함.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물기 순환편을 확대해 이 지역 17개 목적지에 주당 최대 46회를 운항할 예정임. 이는 아시아 지역의 높은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뭄바이 화물기 운항이 2026년 10월 12일부터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에서 신규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으로 전환됨. 이는 공항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확장을 위한 것이며, 신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음. 이를 통해 뭄바이 지역의 산업 및 제조 허브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더 안정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도 강화됨. 프랑크푸르트-타이베이 순환편에 싱가포르가 추가되어 아시아 내 연결 옵션과 메인덱 화물 공간이 확대됨. 프랑크푸르트-호치민-상하이-로스앤젤레스 대서양 횡단 노선은 주 7일 중 2일 운항이 하계부터 유지됨. 프랑크푸르트발 타이베이행과 청두행 추가 항공편도 각각 주 3회 운항됨. 알마티-프랑크푸르트 화물 운송도 재개됨.

이번 노선 개편은 아시아발 화물의 운송 안정성을 높이고, 유럽발 미주행 화물기 증편으로 공급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장 시장으로, 루프트한자 카고 CEO는 나비 뭄바이 연결을 통해 고객이 고성능 인프라와 안정적인 화물 공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 목적지에 주당 최대 46회 화물기 순환편 운영 (이전 대비 확대)
- 뭄바이 화물기 운항을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으로 전환 (2026년 10월 12일부터)
- 프랑크푸르트-타이베이 순환편에 싱가포르 추가로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 강화
- 미주 지역 증편: 댈러스 주 4회, 휴스턴 주 3회, 뉴욕 JFK 주 5회
- 벵갈루루-취리히 SWISS 월드카고 노선 추가로 인도 남부 화주에게 유럽 허브 옵션 제공

전망

루프트한자 카고의 아시아 네트워크 확대와 뭄바이 신공항 전환은 아시아발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인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됨. 신공항 인프라 활용으로 화물 처리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아시아 역내 및 인도발 수출 화물의 운송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시사점

화주 — 인도 및 아시아발 화물의 운송 옵션과 일정 안정성이 확대되어 공급망 계획 수립에 유리해짐.

포워더 — 루프트한자 카고의 네트워크 변화에 따라 화물 스케줄과 연결편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항만·선사 — 항공 화물 공급 확대로 일부 해상 화물의 항공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쟁 구도 변화에 주목해야 함.

참고자료: Air Freight News, 루프트한자 카고, 뭄바이 신공항 전환...아시아 화물 네트워크 확대 (검색일: 2026-10-18)